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당신이 웃을 때 누군가는 운다

장 석 주
시인

숲길 바닥 여기저기에 여문 도토리알들이 나뒹군다. 활엽수의 잎들은 단풍이 들고, 숲길에는 낙엽이 쌓인다. 단풍은 꽃인 듯 화사하다. 동네 도서관 뒤편 단풍으로 물든 숲길을 걷는 게 오후 일과 중 하나다. 나는 숲길을 걸으며, '구르몽, 너는 낙엽 밟는 소리가 좋은가?'라는 중학교 시절 배운 한 시인의 싯구를 떠올린다. 숲길의 청량한 공기와 빛을 사랑한다. 나는 숲길에서 인생이 노래와 같이 흘러간다고 느낀다. 숲에는 '도토리를 주워가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간혹 야박한 사람들이 다람쥐나 청설모의 양식인 도토리를 싹 쓸어간다. 그건 숲의 생명체들에게 저지르는 폭력이고 약탈이다. 숲에는 고양이 쉼터와 급식 접시와 물그릇이 놓여 있다. 누군가 고양이를 살뜰하게 돌보며 물과 먹이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산책에서 돌아와 스탠드 등을 밝히고 어제 읽던 독일 시인 아이헨돌프의 시집을 읽는다. 내가 시집을 읽을 때 고양이들은 애기가 칭얼대듯 공연히 운다. 나는 시집을 내려놓고 심심하다고 우는 고양이를 데리고 사냥놀이를 한다. 막대에 매단 깃털을 휘두르면 마치 사냥감이라도 되는 듯 고양이는 그걸 쫓아 달린다. 깃털이 공중에서 펄럭이면 고양이는 그걸 포획하려고 솟구친다. 고양이가 도약할 때마다 나는 감탄을 한다. 고양이가 숨을 헐떡일 때쯤 사냥놀이를 그만둔다. 간식 몇 알을 얻어먹은 고양이는 더 이상 울지 않고 두 앞발을 가슴으로 접어 넣은 뒤 조용히 쉰다.

지난 여름 장마때 물막이용으로 쌓은 모래자루에서 모래가 반 넘어 흘러나왔다. 모래가 가득 하던 모래자루에서 모래가 반쯤 빠져나간 탓에 홀쭉해졌다. 그새 아이들은 자라고 노인들의 무릎 관절은 조금 더 닳는다. 해질녘 소란스럽던 새떼가 사라지면 빈들에는 어둠이 내린다. 종일 모이를 찾아 돌아다니던 닭들은 닭장 횃대에 올라앉아 잘 준비를 마쳤다. 어느덧 이웃 교회 첨탑의 십자가 네온 조명에 불이 켜지고, 적막하고 검푸르고 하늘에는 청과일 같은 달이 둥실 떠오른다.

이맘때쯤 주방의 냄비에서 배추된장국이 끓고, 밥솥엔 밥물이 넘치며 하얀 김이 피어오른다. 귀가한 식구들은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기다렸다. 우리는 어머니가 지은 밥과 배추된장국, 시금치무침과 고등어구이, 두부탕수를 먹을 것이다. 식구들이 웃으며 식사를 하는 동안 훌륭한 요리사는 우리들 뒤에서 만족한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을 테다. 저녁 식사를 차리던 어머니는 지금 여기에 없다. 세월이 흘러 식구들도 뿔뿔이 흩어져 나 혼자만 남았다.

당신은 가을을 좋아하는가? 가을 저녁의 달콤한 고독에 갇힌 채로 인생을 돌아보아라. 당신이 이 생에서 누린 모든 행운에 감사하라. 나는 가끔 살고 죽는 일에 대하여 곰곰 생각한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멸의 진리다. 돌이켜 보면 생은 내게 많은 것을 주었다. 건강한 심장과 폐와 위를 주고, 온전한 팔과 다리를 주었다. 나는 노동으로 밥을 벌고 그 덕분에 나는 헐벗거나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다. 내게 지상에 와서 제 생을 마치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가슴을 주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려서 보는 눈과 심미적 이성을 준 이 생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지금 누군가는 금생에서의 숨결을 꺼트리고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난다. 장례식장에는 망자를 기억하는 조문객들이 밀어 닥칠 것이다. 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한 사람쯤은 당신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삶이 권력이라면 죽음은 그 권력의 유실이다. 죽음은 생의 불가피한 완결이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당신이 웃을 때 누군가는 흐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가? 당신이 따스한 잠자리에서 잠을 잘 때 누군가는 하룻밤 잠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떠돎을 기억했는가? 당신은 딸과 아들을 늠름하게 잘 키웠는가? 당신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는가? 당신이 잘 살았다면 이는 당신 뒤에 남을 가족에게 큰 영예가 될 테다. 지금은 조락과 죽음의 계절, 이 순간 살아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살아서 아침마다 사과 한 알을 먹고, 사랑하는 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숲길을 산책하며, 골골송을 부르는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고, 가을 저녁의 결이 고운 고요 속에 머문다면 이보다 더한 행운은 없다.

종교칼럼

화해와 수용, 협력의 사회

김 원 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에 보면 "금강이 현세계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金剛現世界 朝鮮更朝鮮)"하신 말씀이 있다. 금강산이 세계에 드러나니 우리나라가 다시금 아침 해와 같은 희망의 나라가 된다는 뜻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큰 보물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곧 금강산이라.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셨다.

원불교의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 법문을 한 때는 1930년 1월이다. 당시 일제의 탄압과 민족말살정책이 날로 심해져가는 암울했던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해방을 2년 앞두고 53세에 열반을 하시게 된다. 원불교 교단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산종사는 해방이 되자 1945년 10월 새나라 건설의 요강이 될 건국론을 발표한다. 건국론에는 국가의 통치체제며 경제·산업·복지·국방·교육·문화·외교에 이르기까지, 국가 운영 전반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국론은 지금에 있어서도 매우 유효한 내용일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민족이 통일국가를 이루는 데에도 큰 지침이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0년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학술회의에서 올해 6월에 열반한 한국 근현대사 분야의 석학인 고(故) 강만길 교수는 건국론의 내용을 살펴보며 해방 후 두 달여 만에 이러한 내용을 기술할 수 있었던 것은 필시 그 제자들 중에 그 분야에 전문인이 있어 보필을 받았거나 평소 정치에 대한 연구가 깊지 않고는 내놓기 어려운 일일 터인데 수도를 주장하는 종교인이 내놓은 저서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하였다. 정산종사는 당시 친소니 친미니 하고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며 다투는 것을 보고 자기 위주나 세력 배경을 삼기 위해 특정 국가에 편향하는 것을 어리석고 비루한 생각이라며 경계하였다. 정산종사가 염려한대로 외부 세력을 배경으로 분단 국가가 탄생하고 동족상잔의 참극을 겪으며 오랜 세월을 형제의 가슴에 총부리를 맞대고 민족 역량을 소진시켜오고 있다.

종교인들은 늘 사랑과 평화를 주장한다.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을 넘어 인류를 사랑하고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자고 한다. 하지만 형제들의 굶주림을 외면하고 형제의 가슴에 칼을 겨누면서 어떻게 사랑을 말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 분단의 극복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주 독립 국가를 이루는 온전한 건국의 길이고 형제와 동포를 아끼고 사랑하는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는 길이다. 원불교에서는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민족 화해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다. 좌산상사는 통일대도를 밝혀 민족통일로 나아가는 정신과 원칙을 밝혀줬다. 그간 민간단체와 정부 당국의 노력과 냉전체제의 변화 등을 겪으면서 통일 환경에도 변화가 왔고 통일의 지평에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핵 문제와 정권 교체 등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통일의 발걸음이 주춤거리고 있다. 일제 치하의 암울했던 시기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 나라를 정신의 지도국이 되고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고 전망하시고 금강산 법문을 통해 우리의 밝은 미래를 예언해 주셨다. 통일은 오게 될 것이며 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은 날 새듯 된다"는 정산종사의 말이 떠오른다. 해방이 갑자기 이루어지듯이 통일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변하지 않는데 그렇게 우리가 먼저 베풀고 우리의 노력들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비판성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좌산상사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크게는 우주로부터 작게는 미세한 세계까지 움직이고 변화하기 마련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변하게 되고 또 우리는 반드시 변화시켜야 하고 이 민족 분단의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는 서로 상이한 체제가 만나서 하나가 되려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제3의 길이 창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쪽이 한쪽을 흡수하는 그런 통일의 방식은 서로에게 수용이 되지 않으며 합의를 도출할 수도 없고 화해를 이룰 수도 없다. 서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길, 이 길이 새로운 정치체제의 방향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이 과거의 역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 길, 원한을 극복하고 원망을 씻어내는 진정한 화해의 길,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고 채워주며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존중해줄지 아는 그런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해와 수용, 협력의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사회주의적 가치와 시장주의적인 가치가 서로 보완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분명 세계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될 것이다.

기 고

위기의 공공의료, 광주시 대책 내놓아야

이 정 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광주지역 만성기 요양 환자를 치료하는 시립병원들이 심각한 운영 적자를 견디지 못해 폐업 위기를 맞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공공의료의 만성기 병상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요구하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에, 광주시는 '공공의료의 공익적 적자를 보전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는 지자체가 책임진다'고 공공의료 정책을 거듭 밝혔었다. 하지만 적자 운영구조인 만성기 병상의 시립병원 운영 적자에 대해서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며, 시립병원의 경영 악화에 대해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다. 이 사이에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의 위·수탁 운영사업이 계속 유찰돼 마침내 존폐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 됐다.

시립 제1요양병원과 시립 정신병원도 예외 없이 경영 환경 악화와 과다한 적자 운영, 노사 갈등과 노조 파업으로 한해동안 언론을 도배하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아직도 과다한 적자 운영에 신음하며 그 후유증으로 위·수탁 운영의 지속 여부와 관련, 많은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다.

왜, 광주시 공공의료 만성기 병상이 이렇게 과다한 적자 운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걸까? 광주시내 의료병상의 과다함 때문일까. 그것도 이유중에 하나이다. 강성노조 때문일까. 그것도 이유중에 하나일 게다. 하지만 광주시의 공공의료에 조금만 관심을 두고 살펴본 공공보건 복지전문가라면 누구나 공공의료 만성기 병상 병원의 위·수탁 운영 공백 현상은 운영 재단의 과중한 희생만으로 공공보건을 유지시킨 채 광주시의 부담은 취소화하려는 광주시의 보건의료 정책 때문이라고 언급할 것이다.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만성기 의료 환경의 급변으로 공공의료의 병상 병원들이 수년전부터 운영 적자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만성기 병상 병원조차도 수익성이 있는 급성기 병원과 동일하게 '위·수탁 운영 공공병원의 독립채산제 운영의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인 듯 싶다.

또한 '경영과 무관한 공공의료의 적자는 보전한다'고 쓰고 '모든 공공의료 사업은 다 경영과 관련된다'고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공공의료의 공익적 적자를 보전한다'고 쓰고서 '공공의료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출 중 제한적으로 극히 일부만 공익'으로 읽으려는 것도 문제다.

광주시의 공공의료 만성기 의료 병상의 위·수탁 운영사업은 현재 의료환경에서 공익 개념의 접근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의 공공의료를 직영체제로 전환하거나 공공의료의 비용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해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공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료는 시민의 권리이기에, 소외계층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에 투입된 정당한 비용은 지자체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공공의, 공공을 위한 '공익적 적자'로 보는 의료복지적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누구나 어느 순간 소외계층에 머무를 수 있기에 광주시의 건강복지 정책이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비용만은 공익적 비용으로 여기며 대가를 치르는 선진 의료복지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다.

최근 광주시민의 열망이었던 광주의료원 건립이 무산됐다. 이제 광주시민의 생명권과 노후 행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공공의료는 몇몇 병원이 그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게 우리의 건강복지 환경이다. 자립과 무관한 공공의료의 만성기 병상 병원은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여부가 존립 자체를 결정하곤 한다. 지자체장의 관심 안에서 공공의료가 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행복타운'이 되기도 하고 관심 밖에서 소외계층이 외롭게 머무는 '음지타운'이 되기도 한다.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만 생각한다면 공공의료의 만성기 병상을 포기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하지만 힘겨운 재정 상황에서도 소외계층의 느려진 호흡을 지켜주기 위해 지자체장이 특별히 관심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국제 민주인권도시 시장답게 우리 부모님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공공의료 복지환경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 지자체장의 관심 속에서 시민의 생명원의 보루인 공공의료가 탄탄히 자리잡아 인권도시 광주에서 안전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시민들의 작은 소망이 결코 지나친 사치는 아닌 듯 싶다.

社 說

지방시대위, 실천으로 지역발전 의지 보여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광주·전남지역의 굵직한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지역발전 청사진을 제시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엊그제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 광주~대구 간 달빛고속철도와 광주~영암 간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아우토반) 건설 등을 통한 '광주 대도시권 강화를 위한 광역발전축 구축' 프로젝트를 담았다. 전남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과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등을 통해 전남의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 등도 포함됐다.

지방시대위가 무엇보다 종합계획에서 '교육'과 '산업'을 지방시대를 열어갈 두 축으로 꼽은 점도 눈길을 끈다. 비수도권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했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공감하는 바 적지 않다. 지역 청년이 머물수 있는 정주여건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목한 점도 긍정적이다. 국내 100대 기업 본사 8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취업자의 50.5%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시대위가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주 지역혁신 융복합단지·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육성, 전남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지리산·섬진강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를 제시해 기대감을 품게 한다.

지방시대위의 청사진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편향 개발로 소외돼온 광주·전남지역에 희망을 품게한다. 하지만 여당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메가 서울'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방시대위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길을 여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해 소멸의 늪에 빠져 있는 지역을 살려낸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지역발전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하고 균형발전 말하나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원화를 위해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72억 8200만 원이 편성돼 올해 82억 5100만 원보다 10억 원 가까이 줄었다.

삭감된 내역을 보면 정보에서 소외된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신문을 통한 교육을 하는 NIE 예산인 지역신문활용 교육지원비 8억 원은 물론 지역신문기획 취재지원비 1억 원과 지역민참여 보도사업 1억 2000만 원 등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사회 실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예산마저 줄여 85명이던 인턴 채용 계획을 40명으로 축소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속에서 지역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지역신문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기금이다. 국회가 2021년 10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것도 여론의 다원화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신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나아가 해마다 국비(일반회계 전입금)로 지원하던 25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언론진흥기금 전입금을 늘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기금 통폐합을 통해 국비 지원을 아예 끊으려는 의도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부가 선심쓰듯 시혜를 베푸는 예산이 아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방분권이니 균형발전이니 말하는 것과도 배치된다. 지역신문들은 지역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임을 다해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신문의 발전이 곧 지역과 국가 성장의 기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원상 회복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無 等 鼓

'달멍'

"잘생긴 부잣집 맏며느리를 보는 흐뭇함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최순우의 백자 달항아리 예찬이다. 미술사학자 김원룡은 "이론을 초월한 백의의 미(美)로 이것은 그저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미의 아이콘'인 달항아리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사용된 시기는 17~18세기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국력이 쇠퇴하던 시기로 화려함보다 실용성을 추구할 때다. 도공들은 잘 만들겠다는 욕심 없이 무심한 경지로 항아리를 빚어냈다. 물레질로 단번에 뽑아 올리기엔 너무 커 사발 모양 두 개를 위 아래로 붙이고, 구울 때 수축률이 달라져 모양이 일그러져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얗고 커다란 항아리를 조선시대에는 백항(白缸) 백대항(白大缸) 백자대호(白磁大壺)라고 불렀는데 이 무미건조한 이름을 '달항아리'로 멋들어지게 바꾼 이는 신안 출신 추상미술의 거장 수화 김환기다. 스스로 '달항아리 귀신'이라고 했던 수화는 "단순한 원형이, 순백이, 그렇게 복잡하고 미묘하고 불가사의한 미를 발산할 수가 없다. 실로 조형미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밤하늘에 둥실 떠 있는 보름달 같은 백자를 열심히 화폭에 옮겼다. 그에게 달은 달항아리였고, 달항아리가 곧 달이었다.

최근 달항아리가 서울옥션 경매에서 34억 원에 낙찰돼 국내에서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다. 47.5cm에 달하는 대형 작품으로 담백한 유백색을 띠어 '국보급'이라는 평가를 받은 도자기다. 지난 3월에는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45.1cm 높이의 달항아리가 456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에 낙찰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몸값을 자랑했다.

도자기뿐만 아니라 붓으로 빚은 달항아리도 인기다. 김환기 이후 도상봉, 최영욱 등 많은 화가들이 달항아리를 그렸는데 요즘엔 특히 빙열(잔금)까지 정밀하게 묘사한 극사실화가 곳곳에 전시되어 눈길을 끈다. 불을 바라보며 멍때리는 '불멍'처럼 달항아리를 쳐다보며 '달멍'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힘들고 외로울 때, 마음이 지쳐있을 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보자. 달항아리의 꾸미지 않은 소박한 아름다움이 잔잔한 위로를 줄 것이다.

/유제관 편집담당1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